

'25년 6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광주문화방송

1. 회의 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사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25-06	6.18	담양LP음악총 전소	10/12	4	1	15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김동진·박양우·박종수·반수경·설제학·양지현·이경주·이미진·정인영·정희(10명)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원승연(경영본부장), 김민호(콘텐츠본부장), 김철원(보도본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팀 부장)

2. 심의 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3	8	0	3	14	0	14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계
건수	14	0	0	14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 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시사용광로> 진행자가 시간제한에 대한 멘트 자주 이야기함. 마무리를 여유 있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	보도 책임자와 프로그램 담당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6.30)	'25.6
"	토론 프로그램 서재 세트, 형식적인 배경으로 보임	특집 토론방송 시 세트 변경 및 향후 개편 시 세트 개편 검토 조치	"
"	금호타이어 이전 등 관련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 바람	<뉴스데스크> 금호타이어 화재··광산구 고용위기지역 신청(6.23), 금호타이어 시민대책위, 범정부 차원의 지원 촉구(6.24), 금호타이어 정상화 대책위, 대통령실 의견서 전달(6.27), <뉴스투데이> 박병규 광산구청장 “금호타이어 이전하면 경제적 효과 10배”(7.4) 등 방송 조치	"
교양	<빛나는 나의 도시> 시청자와 소통, 참여 강화 바람	시청자 참여 ‘당신의 사진첩’,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실시간 시행 등 방송 조치	"
"	<광주MBC보다>, 지역문화 다양하게 다뤄주길 바람	<광주MBC보다> 장성 로컬푸드(6.23), 혼자서도 즐겁게 극(아이)를 위한 광주 나들이(6.23), 고흥 아이들의 꿈꾸는 놀이터(6.30), 화순 신비 복숭아(6.30), 순천만 잡월드(7.7), 보성 윤제림(7.7),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을 걷다(7.7) 등 지역성 강화 방송 조치	"
"	<빛나는 나의 도시> ‘빛보드 뉴스’, 뉴스 간 무게감 차이 아쉬움	편성 책임자와 담당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6.30)	"
"	<빛나는 나의 도시>, 광주·전남지역 여행지 소개 바람	<빛나는 나의 도시> 신안 옥도 바다정원(6.24), 당일치기로 즐기는 개도(7.1), 양림동에서 즐기는 이색 체험(7.2), 도초도 수국정원(7.8) 등 방송 조치	"
"	<빛나는 나의 도시>, 외국어, 외래어 대신 우리말 사용 확대 바람	편성 책임자와 담당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6.30)	"
"	<테마기행 길> 정보의 깊이 보강 필요	편성 책임자와 담당자, 지역 MBC 공동제작사 의견 전달 조치(6.30)	"
"	<다큐멘터리 광주만이 빛나고 있었다>, 구술 자료의 활용 부족 아쉬움	보도 책임자와 담당자 의견 전달 조치(6.30)	"

"	<라디오칼럼>, 다양한 직업군의 칼럼니스트 확대 바람	8월 중 칼럼니스트 추가 위촉 조치	"
기타	유튜브 <테이스티 남도>,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기획 바람	전라도 맛탐방, 월간본술랭 등 다양한 주제별 제작 확대 조치	"
"	유튜브 <리얼 뮤직>, 방송 날짜, 촬영 시기 등 정보 제공 필요	향후 콘텐츠 업데이트 시 방송 정보 제공 조치	"
" (시청자 의견)	<빛나는 나의 도시> 광주 시내버스 파업 관련 방송, 편향적이지 않도록 다뤄주어야 함	편성 책임자와 담당자 의견 전달 조치(6.30)	"
합계		14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메일	해당 사항 없음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보도	<시사용광로> 진행자가 시간제한에 대한 멘트 자주 이야기함. 마무리를 여유 있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	프라임 시간대(밤 9시~10시)이고 토론 주제를 충분히 다루기에 부족한 시간이어서 그런 멘트가 있는데 시간 조절을 잘해서 패널들이 촉박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음	○		
"	<시사용광로> 서재 세트, 형식적인 배경으로 보임	토론이라는 포맷과 어울리는 세트로 생각해서 이용해오고 있는데 향후 개편 때 다양한 디자인을 놓고 개선을 검토하겠음	○		
"	금호타이어 이전 등 관련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 바람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제인 만큼 원만한 합의와 개선책이 도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도하겠음	○		
교양	<빛나는 나의 도시> 시청자와 소통, 참여 강화 바람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실시간 소통하고 있으며 새로운 참여 방법을 모색하겠음	○		
"	<광주MBC보다>, 지역문화 다양하게 다뤄주길 바람	지역 관련 소재를 발굴하고 다양하게 소개하도록 노력하겠음	○		
"	<빛나는 나의 도시> ‘빛보드 뉴스’, 뉴스 간 무게감 차이 아쉬움	‘빛보드 뉴스’ 코너의 뉴스 선별 기준을 재점검하고, 뉴스의 중요도에 따른 우선 배치 및 편집 방식 개선 조치하겠음	○		
"	<빛나는 나의 도시>, 광주·전남 지역 여행지 소개 바람	지역 관련 소개를 확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		
"	<빛나는 나의 도시>, 외국어, 외래어 대신 우리말 사용 확대 바람	고유한 지역 정체성을 살리는 프로그램 특성을 고려해 향후 제작 과정에서 우리말 표현을 우선 검토하도록 내부 가이드라인 마련해 조치하겠음	○		
"	<테마기행 길> 정보의 깊이 보강 필요	MBC 계열사에 의견을 공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	<다큐멘터리 광주만이 빛나고 있었다>, 구술 자료의 활용 부족 아쉬움	사전 취재 단계에서부터 구술 자료 발굴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전문가와의 협업 적극 검토했으며, 향후 프로그램 제작 시에도 의견을 참고하겠음	○		
"	<라디오칼럼>, 다양한 직업군의 칼럼니스트 확대 바람	기존 전문가 중심의 편중을 벗어나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균형 있게 담길 수 있도록 직업·세대·관심 분야를 고려한 섭외 계획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을 수립 중, 8월에는 다양한 직업군의 칼럼니스트 보강 예정임			
기타	유튜브 <테이스티 남도>,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기획 바람	단순한 맛집 소개를 넘어 지역 소상공인들의 스토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가치, 지역 농산물 연계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하겠음	○		
"	유튜브 <리얼 뮤직>, 방송 날짜, 촬영 시기 등 정보 제공 필요	<리얼 뮤직> 유튜브 업로드 시 방송 날짜, 촬영 시기 등 기본 정보를 영상 설명란 및 자막 등을 통해 명확히 안내하도록 조치	○		
" (시청자 의견)	<빛나는 나의 도시> 광주 시내버스 파업 관련 방송, 편향적이지 않도록 다뤄주어야 함	앞으로 민감한 사회 현안 보도 시 반드시 공정성과 균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조치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5년 6월)

일시	2025년 6월 18일(수) 17시	장소	담양LP음악충전소
참석자	위원회	김동진·박양우·박종수·반수경·설제학·양지현·이경주·이미진·정인영·정희 위원(10명)	
	회사	김낙곤 사장, 원승연 경영본부장, 김민호 콘텐츠본부장, 김철원 보도본부장(4명)	

■ 회의 내용

- 김동진·박양우·박종수·반수경·설제학·양지현·이경주·이미진·정인영·정희 위원 순으로 위촉장을 수여함
-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 -이경주 위원이 박양우 위원을 위원장으로, 정인영 위원이 이미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참석 위원 전원 찬성으로 호선함
- 박양우 위원장 : -저를 다시 시청자위원장으로 뽑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위원회가 시청자를 대변하고 광주MBC가 공적인 책임을 다하도록 여러 위원님과 함께 노력하겠다. 오늘은 특별히 담양 LP음악충전소에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 공간이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고, 담양까지 오신 위원님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사장님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겠다.
- 김낙곤 사장 : -시청자위원회를 계속 맡아주신 박양우 위원장님과 연임을 해주신 위원님, 또 오늘 새롭게 위촉된 위원님께도 감사드린다. 이곳은 광주MBC가 3만여 장의 LP 음반을 담양군에 기증하고, 담양의 도심 활성화를 위해 만들었다. 저희는 LP를 활용하여 지역민이나 관광객이 문화의 향기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공간이 활성화될 방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기를 바란다. 광주문화방송이 아닌가.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관심을 두고 노력하겠다.
- 박양우 위원장 :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달라.
- 김민호 콘텐츠본부장 : -<아시안 탑 밴드 시즌2>가 몽골 NTV, 베트남 HTV에 송출 완료했다. 보성 다향대축 제기념 <MBC 가요베스트> 1, 2부 방송을 했고, <아시안 탑 밴드 시즌3>에는 몽골 NTV, 베트남 HTV, 일본 나고야 테리비, 중국 청두 방송, 필리핀 TV5가 참여를 확정했다. 특히 <아시안 탑 밴드 시즌3>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AI 디지털 기반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해외 진출형 비드라마 부문에 선정돼 제작 지원 3억 원을 받게 됐다. 7월에는 국립남도국악원 특집 <우리 가락 우리 문화> 제작을 준비 중이며, 라디오 칼럼니스트 위촉식을 열 예정이다.
- 김철원 보도본부장 : -5.18 45주년 특집 다큐, <광주만이 빛나고 있었다>를 방송했다. 배우 김의성, 김규리, 조진웅, 영화감독 변영주, 광주시민들의 시 낭송 등으로 구성됐는데 지역민들로부터 호평이 이어졌다. 지난해 제작한 5.18 44주년 다큐멘터리 <그가 죽었다>는 올해 5.18 기념일 당일에 전국 방송이 됐다. 6.3 조기 대선 기획보도로 1편 대선 후보들 “‘AI·공항’ 목은 현안 풀겠다”, 2편 대선 후보들의 광주 교통 공약, 실현 가능성에 의문, 3편 현안 대거 반영됐지만.. 지킬 수 있을까? 등을 보도했다. 이외에도 금호타이어 화재 관련 집중 보도를 했으며, <시사용광로>에서는 새 정부에 거는 기대, 금호타이어 화재, 정상화 대책은? 등을 주제로 방송했다. 주요 계획으로 6.3 조기 대선 그 후를 살펴볼 예정이다. 조각과 100대 국정과제 선정 과정에서 광주·전남 현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보도하겠다. 또, 지방선거 D-1년을 준비하겠다. 다른 지역 언론사와 함께 공동여론조사 공표를 준비 중이다.
- 박양우 위원장 :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다.
- 김동진 위원 : -매주 화·수·목 저녁에 방송되는 <생방송 빛나는 나의 도시>는 광주·전남 지역의 일상, 생활정보, 소식 등을 실시간으로 다루며, 시청자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지역 밀착형 매거진이다. 지역 현안과 생활 밀착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 프로그램이 지역민들과의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시청자

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길 바란다.

-<광주MBC 보다>는 광주MBC가 제작한 우수 콘텐츠를 엄선해 지역의 문화, 여행, 음식, 공간 등 다양한 주제를 소개한다. 이 프로그램이 지역문화 자원의 발굴과 홍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세대의 시청자에게 폭넓게 어필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지역문화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다양하게 다뤄주길 바란다.

○ 박양우 위원장 : -<빛나는 나의 도시>는 일상을 멈추고 쉬과 여행을 통해 삶의 의욕을 돋우는 유쾌한 프로그램이다. 6월 5일 방송에서 전채요리처럼 등장한 ‘빛 보드 뉴스’는 관심 있는 내용을 핵심만 전해 줘서 좋았습니다. 다만, 전하는 내용 중 ‘아트 피크닉’ 등은 ‘미술 소품 또는 예술 소품’ 같은 예쁜 우리말로 쓸 수 있는 것들인데 외래어나 외국어를 그대로 방송에 쓰고 있어서 아쉬웠다. 물론 행사 주최자가 아니기 때문에 행사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다 보니 그랬겠지만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방송에서 전달할지를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당신의 사진첩’도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대리 여행의 만족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고 믿는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여행 장소를 광주나 전남 위주로 하든지, 아니면 광주나 전남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다른 지역으로의 여행이라면 충분히 이해된다. 다만 이번 프로그램의 경우 제주도가 많았는데, 여행지역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기를 바란다. 백운광장 야시장을 소개했는데 정말 가보고 싶을 정도로 잘 소개해 주었다. 조금 더 규모를 키우고 먹거리를 다양화한다면 광주 관광의 매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전국적인 관광명소로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남해 독일마을 축제인 ‘마이 페스트 행사’와 다른 지역의 맛집들을 소개한 것도 상큼했다. 다른 지역의 축제나 맛집들을 소개함으로써 역외로의 여행안내는 물론 광주광역시 당국과 시민들에게 새로운 정책과 경영 시각을 제공해줄 수 있었다고 믿는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에 관해 한 번 고민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컨대, 앞에서 언급했던 ‘아트 피크닉’ 외에도 ‘다크 투어리즘’, ‘백운광장 스트리트 푸드 존’, ‘오픈 채팅방’ 같은 용어를 어떻게 우리말로 방송하는 것이 좋을지 말이다. 사실 이 용어들이 이미 행정이나 학문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우리말로 번역해 사용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그러나 광주문화방송이 우리말 사용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왔고 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역사가 있는 터라 당부 차원에서 언급해 본 것이다.

○ 박종수 위원 : -6월 6일 <테마기행 길>에서는 ‘익산 상상 그 이상의 시골여행’을 주제로 방송했다. 교도소 세트장 체험부터 공공 승마장 방문, 고구마 순대 소개까지 풍성한 체험 요소가 돋보인다. “상상 그 이상의 시골 풍경”이라는 자체 태그처럼 감각적이고 실감 나는 여행 체험을 제공해 몰입도를 높인 거 같다. 익산 지역의 농촌 풍경과 문화유산(예: 고구마, 교도소 세트장 등)을 발굴·소개해 고요하고 아늑하면서도 흥미로운 지역 이미지를 전달한 거 같다. 진행자의 차분하고 친절한 해설은 시청자에게 여행 현장에 있는 듯한 편안한 느낌을 주었다. 다만 경험 중심 설명이 풍부한 탓에, 예를 들어 고구마 순대의 유래나 승마장의 운영 배경 등 역사·문화적 설명이 다소 가볍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거 같다. 정보의 깊이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방송에서 다룬 교도소 세트장, 승마 등은 주요 체험 콘텐츠는 중·장년층에게 흥미로울 수 있으나, Z세대나 MZ세대를 타겟으로 한다면 디지털 경험, SNS 연계 콘텐츠 등 젊은 층을 끌 만한 요소가 약할 수 있다. 구성의 반복성 ‘건기→체험→지역 음식 소개’라는 여행 포맷은 익숙하지만, 연속 시청시 유사 포맷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 프로그램마다 테마나 연출 방식에 더욱 변화를 줘도 좋을 것 같다.

○ 반수경 위원 : -시청자위원회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사용광로> ‘새 정부 1호 과제 ‘민생 회복’ 어떻게?’ 편은 출연자들이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역 상생카드 및 현금 등 보편적 지급방안을 토의하는 시간이었다. 지난 정부의 부족하고 잘못된 점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본 프로그램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을 강조하려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양하면 좋을 듯하다. 출연자 조인철 의원은 추경에서 결정된 정책 사항을 전달해줄 때 시기나 금액을 확실하게 말해주어야 하는데 아마 언제쯤, 그럴걸요? 등의 표현은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정책에 대해 확신을 주지 못했다. 배달앱 활성화 방안 및 소상공인 살릴 방안 토의에서는 좀 더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어필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나 대안을 이야기해 주기보다는 현상을 짚어주고 문제점을 꺼내주는 수준이어서 다소 아쉬운 내용이었다. 배경 화면의 서재에 진열된 책들은 본 방송 프로그램과 연관성 없는 서적

들로 보여서 너무 형식적인 배경으로만 보이므로 가능하면 프로그램 내용에 연관된 책들로 진열된다면 시청자들에게 좀 더 친밀하고 신뢰감 있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진행자는 프로그램 진행 시간의 구조화를 잘해서 진행 중 시간에 대한 언급 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시간제한에 대한 멘트를 너무 자주 이야기해 줌으로써 보는 시청자 처지에서는 급박함으로 마음이 편치 않았다. 마무리를 여유 있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 설제학 위원 : -어렸을 때 합창반으로 광주MBC에 온 적이 있는데, 50이 넘은 나이에 시청자위원으로 인연을 맺게 돼 영광이다. 광주시의사회의 추천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만큼 이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특히 우리 지역은 의대 설립 등 현안이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 여러 위원님 이 자리에서 뵙게 돼 반갑다.
- 양지현 위원 : -<빛나는 나의 도시>(6월 12일) 는 이색적인 사진관을 소개하는 것이 인상적이었고 독특한 사진관이 광주에 있다는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고 SNS 활동을 활발히 하는 MZ세대들과 주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알찬 정보인 것 같다. '빛보드 뉴스' 3위에 호남대학교 66세 최성학 씨의 1분 55회 턱걸이 달성 뉴스는 전체적인 다른 뉴스에 비해 무게감이 떨어져서 아쉬웠으며, 더 재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 이경주 위원 : -광주MBC의 5·18 특집 다큐멘터리 <광주만이 빛나고 있었다>는 광주의 아픈 역사를 '시'라는 언어를 통해 풀어낸 점에서 매우 인상 깊은 작품이었다. 특히 다큐멘터리 제목이 1982년 일본에서 발간된 동명의 연대 시집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5·18 광주항쟁의 진실이 국내에서는 제대로 조명되기 어려웠던 시기에, 시를 통해 국경을 넘어 연대의 언어로 광주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그 시집의 상징성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서,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계승해야 할 5·18의 의미를 진중하게 던진다. 특히 마지막 챕터 「그 시가 우리에게 왔다」에서는 다양한 세대, 국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시를 낭송하며, 5·18 정신이 오늘의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남기는지를 직접적으로 묻는다. 그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장면은, 광주와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오월의 시를 읽고 그 의미를 곱씹는 모습이였다. 이 장면은 5·18이 단지 지역의 기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기억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렬한 순간이었다. 다만, 시민들의 일상 속 기억이나 구술 자료의 활용이 조금 더 풍부했다더라면, 광주라는 도시의 집단적 기억이 더욱 다층적으로 전달될 수 있었을 것이라 아쉬움도 남는다. 그런데도 이 작품은 지역방송이 만들어낸 뛰어난 공공 다큐멘터리로서, 5·18의 정신을 오늘에 새기는 데 충분한 울림을 주었다. 지역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 수작이며, 시청자위원으로서 이 같은 기획이 더 많이 확산하기를 희망한다.

-광주MBC에서 최근 다시 시작한 <라디오 칼럼>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육성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특히 텍스트 기반 칼럼이 주는 정제된 전달력에 더해, 목소리를 통해 청취자와 감정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라디오 매체'의 장점을 잘 살렸다. 지역 내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광주·전남의 주요 이슈를 짚고 밀도 있게 풀어낸다는 점이였다. 한 편의 칼럼이 3분 내외로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 처지에서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었고, 목소리를 통해 전달되는 진정성이 더욱 와닿았다. 다만, 개선의 여지도 느껴졌다. 현재 <라디오 칼럼>은 대부분 일방적인 전문가 중심의 전달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취자의 참여나 반응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 저 역시 칼럼니스트로 직접 참여하면서 지역 현안에 대해 생각을 나누는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있지만, 방송 후 청취자의 의견이나 공감, 혹은 질문이 이어지는 통로가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는 청취자 의견을 소개하거나, 특정 주제에 대해 시민 사연을 엮어 구성하는 등 양방향 소통 요소가 일부 포함된다면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현장감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청취자층이 다양화되는 만큼, 청년세대나 다양한 직업군의 목소리도 칼럼니스트로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디오 칼럼>은 지역방송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광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꾸준히 발언하고 공유하는 창구로서, 이 프로그램이 지속적이고 살아있는 지역 담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 이미진 위원 : -오늘 첫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지역 여성경제인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활동하겠다. 언론이나 방송은 거창하고 거대하게 느껴져 부담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더군다나 부위원장이라는

직함까지 주셔서 소홀할 수 없게 됐다. MBC는 물론 지역의 시청자들에게 보탬이 되는 일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겠다. 감사드린다.

- 정인영 위원 : -<전설의 타이거즈>는 콘텐츠 기획력이 돋보이며,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깊은 인상을 주었다. 광주MBC가 디지털 중심 채널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느껴지며, MZ세대의 레트로 감성 소비 흐름과 잘 맞아떨어진 덕분에, 비교적 많은 시청 횟수를 기록하며 가장 인기 있는 디지털 콘텐츠 중 하나였다. 이 콘텐츠를 활용하여 광주MBC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로의 유입을 더욱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얼씨구 TV>는 구독자 수가 17만 명에 가까운 것은 매우 인상적이며, 전통 소리판 문화의 명맥을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잘 유지하고, 알리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특히 백금열 소리꾼 영상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이유는 스토리 중심의 희귀 국악 콘텐츠, 인물 중심의 감성 몰입, 그리고 뉴스·정치와 문화 소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구성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요소들을 적극 활용해 영상 퀄리티 향상과 접근성 강화, 나아가 광주MBC 고유의 디지털 브랜딩 전략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광주 맛집을 탐방하는 콘텐츠가 많아지고 있는 흐름을 감안했을 때, <테이스티남도>는 그 흐름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시민 참여 방식을 확대하거나, 재료별·요리 형태별로 짜임새 있는 구성을 도입하여, 광주 고유의 맛집 정보를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콘텐츠 자체가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획 방향을 보완하면 좋겠다.

-<리얼 뮤직>은 현재 구성된 음악 클럽 모음 자체는 좋지만, 최근 업로드된 비트박스 클럽은 최근 주목받은 도파민 영향으로 올린 것 같은데 10년 이상 된 MBC <난장> 영상으로 추정되는 콘텐츠다. 최신 음악 콘텐츠를 기대한 시청자로서는 아쉬움이 느껴질 수 있다. 실제로 “시장판 같다”라는 댓글도 확인되며, 시청자들의 콘텐츠 소비 수준이 높아진 만큼, 정확한 방송 연도, 촬영 시기 등 콘텐츠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최소한의 방송 연도·출처 명시와 더불어, 시대감각에 맞는 편집이나 해설 추가도 고려해주시길 바란다.

- 정희 위원 : -<2025 보성다향대축제 기념 MBC 가요베스트>에는 많은 사람이 운집한 가운데 큰 인기를 끌었으며, 축제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는 데 일조하였다고 생각한다. <광주만이 빛나고 있었다>는 오월의 시를 중심으로 당시의 기억과 진실을 되살린 구성으로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날의 아픔을 생각나게 만들고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명제로 자리잡을 것으로 생각한다. 금호타이어 새 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광산구에서 공장용지의 용도변경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 뉴스에서 다루어졌다. 용도변경이 조속히 현실화한다면 고용 안정, 협력업체 안정 및 광주시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주길 바란다.

- 박양우 위원장 : -기타 시청자 의견 6월 17일 방송한 <빛나는 나의 도시> 내용이 있다. ‘백금열의 뉴스 모타 모타’ 코너에서 광주 시내버스 파업 관련해 ‘시민을 볼모로 삼아야 했겠느냐?’는 쪽과 ‘임금은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갈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정부의 실정과 윤 전 대통령 비판에도 거침이 없어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들이 많은 한편,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이들에게는 지나치게 편향된 뉴스 평가는 아닐지 우려됐다는 의견이다. 지역 현안이 많은데 저마다 이해관계에 따라 견해가 다르고, 때에 따라서는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균형 있는 보도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 시청자의견에 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달라. 의견이 없으니 이것으로 2025년 6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다.

- 원승연 경영본부장 :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시청자위원회는 세 번째 수요일인 7월 16일이며, 광주MBC 회의실에서 열린다. 많은 참석을 바란다.

끝.